


업무상질병자를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과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1989년 신설된 이후 현재 2006년 1월 연구기능 부서로 안전경영정책연구실, 안전위생연구센터, 직업병연구센터 체제로 조직이 개편되었고, 1990년부터 2005년까지 연간 평균 약 33개의 연구 과제를 수행해 왔으며 총 509개 연구과제가 수행되었다. 이 중 안전보건정책 연구분야 44개 과제, 안전분야 연구 183개 과제, 보건분야 연구 중 산업위생 분야(보건관리 분야 포함) 83개 과제, 직업병연구 분야 132개 과제, 작업관련성질환 연구분야 7개 과제, 화학물질독성 연구분야 60개 과제가 수행되었다¹⁾.

최근 2년간 수행한 연구과제 중 업무상질병자(직업병자 및 작업관련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질병자 정밀분석을 통하여 수행한 결과를 연구보고서로 발표한 과제 3건이 있었다²⁾.

직업병자에 대한 연구결과보고서는 2004년에 수행한 『최근 3개년간 요양승인 된 직업병자 정밀 분석을 통한 직업병 감소 및 예방 대책 수립을 위한 정책 연구』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 동안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 사례를 정밀분석하여 직업병의 종류와 특성을 밝힘으로써 직업병 예방사업이나 산업보건 연구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기초 자료로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기존 공식 통계에서 나타난 유해인자 및 질병명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고 인정사례

의 상당부분이 산업보건 관리의 주요 대상인 광업이나 제조업 이외의 업종에서 발생하였고, 특히 병원종사자나 공공근로 종사자에서 감염성질환, 피부질환과 같은 질병이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파악하였다.

작업관련성질환과 관련한 연구결과보고서는 2004년에 수행한 『2003년 요양 승인된 작업관련성 질환자 정밀분석을 통한 직업병 감소 및 예방대책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와 2005년에 수행한 『2004년도 직업병 요양자료 정밀 분석 결과-작업관련성 질환을 중심으로-』로, 2003년 1년 기간 동안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 사례 중 작업관련성 질환을 중심으로 정밀분석하여 작업관련성 질환(뇌·심혈관계 질환 및 근골격계 질환)의 종류와 특성을 밝힘으로써 직업병 예방사업이나 산업보건 연구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작업관련성 질환 발생까지의 평균 근속년수는 뇌·심혈관계 질환이 5.0년, 신체부담관련 질환이 11.2년, 요통은 9.7년으로 조사되었고, 제조업 중에 있어서 뇌·심혈관계 질환은 기타 제조업에서 많은 분포를 보인 반면에 근골격계 질환은 자동차 제조, 자동차 부품제조업, 조선업 등 주요 제조업종에 집중되어 발생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제공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병연구센터

1)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연구보고서 총람을 이용하여 파악된 연구과제 숫자이므로 실제 발표된 연구원 보고서 수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 이 보고서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홈페이지(oshri.kosha.or.kr)에서 직업병연구센터의 직업병예방연구 또는 연구보고서 코너에서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